



담양군, 식품안전관리 '전국 우수기관' 선정

적극적인 교육·홍보로 식품안전 의식 강화



전남 대표 관광도시 담양군이 식품안전관리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담양군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식품 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식품 안전관리 우수기관은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히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추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총 26개 업소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선정됨으로써 위생등급제 지정율 104%를 달성해 전국 1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그 외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실천 결의와 손소독제, 식탁살균제, 위생마스크 등의 청결 물품 홍보를 통해 기초 위생관리에 대한 음식점업주의 자발적인 의식 전환을 이끌어내 지난해 식중독 발생 사고가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담양군이 식품안전관리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업주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과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음식문화 선진도시 담양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시, '시내버스 정류소 에어컨' 시범 운영

지난 8일 정류소 2개소에 설치...시범 운영 후 확대 검토



여수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시내버스 정류소에 에어컨을 설치해 시

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에어컨은 선풍기처럼 바람을 일으키는 송풍시설로 버스 정류소 내부 온도와 체감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뛰어나다. 시는 지난 8일 학동 전남시장과 교동 광주은행 정류소에 각각 에어컨 4대를 마

운영 후 시민 호응도와 효과를 바탕으로 확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जाएगा"고 말했다. 여수시는 시내버스정류소에 발열의자 96개소와 온실텐트 85개소를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수목원, 국립에코난대식물원 유치 총력

완도군은 완도수목원이 전남도 국립에코난대식물원 유치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에코난대식물원은 총 200ha 규모에 국비 1,500억 원을 들여 기후대별 유리온실, 식물연구지구, 교육·휴양지구, 6차 산업화지구를 갖추는 사업이다. 전남 서남권의 기후변화 대응 전지기지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플랫폼 역할을 하는 국립에코난대식물원 유치를 위해 완도를 비롯해 여 장흥 천관산, 강진 부용산, 해남 달마산 진도 지력산 등 5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했으며 입지선정위원회와 임직원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완도수목원이 선정됐다.

완도군은 지난 3월부터 완도수목원의 입지적 특성을 자체 조사하고 대용 자료를 분석 후 난대림 자연임상에 의한 단기간 내 조성 효과와 대형 온실 등 시설물 건립 시 즉시 개장 가능, 임도 등 기존 기반 시설 이용에 의한 사업비 절감 효과와 경남 거제시와의 경쟁에 있어 우월적 입지적 특성의 당위성을 집중 공략했다. 이를 위해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에코난대식물원 유치 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지역 발전의 큰 획을 긋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을 감안하여 전남도 관련 부서에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를 통해 후보지 유치가 성공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영암군,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공모사업 최종 선정

영암군이 행안부 주관 2019년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공모사업에 대전광역시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최종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8천 만원을 확보하였다. 영암군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두메산골 지역인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와 청용리 일대 자연마을에,

인근 자치단체인 장흥군의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협업 사업으로 신청하여, 1차 서류평가와 2차 PPT보고를 거친 결과, 사업규모나 아이디어 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선정되게 되었다. 이는 지자체간에 상수도 시설물을 상호 공동 이용하는데 큰 의의

가 있으며, 영암군으로서는 상수도 원거리 관로매설에 따른 비용절감, 갈수기 식수원 고갈문제 해결 등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과 더불어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화순운주문화축제' 성료



화순운주문화축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화순군 대표 축제로서 거듭나고 있다. '일어서는 와불,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화순운주문화축제는 밀려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 파노라마를 만들었다. 축제 첫날인 11일 오전 도암농악단의 길놀이 행사로 신명 나는 축제가 시작됐다. 민민의 날 행사로 진행된 율놀이, 고무신 명중 차기, 투호놀이, 옛 물고 달리기 등을 통해 민

민의 화합을 다지고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진 축제를 만들었다. '와불 세우기' 퍼포먼스 참석자들은 저마다 소원을 빌며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천대만 상 가수 윤수현이 공연한 산사 음악회는 관람객이 함께 호응하며 분위기를 높였고 마지막 프로그램인 포엠 콘서트는 힐링을 선물했다. 석가탄신일인 축제 둘째 날에는 도암중학교와 천태초등학교 학생들의 초록 공연,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평양예술단 공연 등이 이어지며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운주사 관선 시 '종정 달다'로 유명한 시인 정호승의 토크 콘서트, 도암면 주민들로 구성된 운주골 소녀시대와 난타공연, 도암 노래자랑 등

이 휴식 같은 시간과 즐거운 어울림 마당을 선사했다. 연꽃·연등 만들기, 아이클레이와불·탑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버블체험, 글쓰기와 그리기 대회, 느린우체통 프로그램인 편지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졌다. 전통전통사신문화관과 함께 한 '도암 사람들' 사진전도 눈길을 끌었다. 사진전은 사진작가 10명과 도암면 주민이 협업해 탄생했다. 사진전은 도암 주민들이 자부심을 키우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고 관광객에게는 도암 주민의 일상을 담은 사진 작품을 통해 농촌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다. 정용재 화순운주문화축제추진위원장은 "복잡한 운주사 경내를 벗어나 운주사 관광지 이외무대에서 축제를 진행하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면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흥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공모 1억원 확보

저소득층 가정 소규모 개보수 통한 주거안정 기여

장흥군 특화시책인 '찾고, 이어주고, 감싸주는 협력복지 모델'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장흥군에서는 본 공모에 앞서 공무원, 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Help

day를 운영하고 있었다. Help day를 통해 발굴된 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는 긴급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연계 및 각종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사각지대로 발굴·지원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소규모 집수리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민간지원 연계만으로는 많은 대

상자들의 욕구를 해결 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금번 공모사업을 통해 최소 20가구 이상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정중순 군수는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적극 협조하여 집수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 대상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전하였다. 장흥=송호빈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